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4 호 【루게 제 24417 호】 창제 103 (2014)년 1월 4일 (토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사설

###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기세드높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신심과 활력에 넘쳐 새해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호소따라 선군조선  
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  
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  
고있다.

오늘의 총진군은 마식령전역에서  
창조된 새로운 진군속도로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  
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전면적공  
세이다.

지난해 마식령스키장이 만년대  
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완공되  
고 《마식령속도》가 창조된것은 조국  
청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기적이다.  
《마식령속도》의 창조, 이것은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혁명적진군에 새  
로운 박자를 가하는 장엄한 포성으  
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  
한 대비약, 대혁신의 활로를 열어놓  
은 경이적인 사변으로 된다. 《마식  
령속도》가 창조됨으로써 당이 결심  
하던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백두산  
대국의 혁명적봉파가 힘있게 과시  
되고 올해의 총진군의 승리를 위한  
사상정신적도약대가 마련되게 되  
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  
들, 인민들은 마식령스키장의 완공과  
더불어 건설의 최진성기를 안이온  
크나큰 긍지에 넘쳐있으며 《마식령  
속도》를 창조한 기세드높이 질풍같  
이 내달려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힘  
차게 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서 발휘되  
고있는 군인들의 불굴의 투쟁정  
신, 투쟁기풍을 따르며 우리 나  
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일  
으켜나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의도이며 결심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년대기마다  
새로운 진군속도를 끊임없이 창조하  
며 세계적인 기적과 영웅적위훈을  
수놓아왔다. 천리마속도와 비날론속  
도, 80년대속도와 최천속도, 여기  
에는 빈대에서 사회주의강국으로 단  
숨에 솟구쳐오르고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으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온  
우리 조국의 비약의 력사, 천지개벽  
의 력사가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영  
광스러운 시대에 새로운 대진군속도  
가 창조된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  
이다. 남들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할수 없는 방대한 공사를 1년 남짓  
한 짧은 기간에 완공하고 천연원시  
림과도 같은 깊은 산중에 사회주의  
문명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을 로  
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호  
통히 일떠세운것은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마식령속도》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대한 부강조국건  
설구상과 애국헌신의 령도가 안이온  
새로운 사회주의대진군속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에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고 마식  
령스키장건설을 여러차례 현지  
지도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에게 《마  
식령속도》를 창조할때 대한 크나큰  
민심을 안겨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 지휘력량도  
꾸러주셨다. 건설정형을 기수로 앞  
이보시고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  
들에서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  
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시기 위한 대  
책을 세워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며 모든 건설대상을 지역적특성  
을 살리면서 손색없이 완성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분이 우리의  
원수님이다. 건설장을 찾았을 때  
마식령에서부터 천지개벽되었다고  
인민군대에 의하여 《마식령속도》  
라는 새로운 시대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고,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  
한 전체 건설자들은 모두가 애국자  
들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  
하여 마식령스키장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

세고 《마식령속도》가 창조될수 있  
었다.

《마식령속도》에는 젊음으로 약동  
하는 우리 조국의 비약의 기상이 어  
려있고 우리 식의 창조방식, 창조본  
매가 집약되어있으며 세계를 향하여  
더 빨리, 더 힘차게 내달리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향과 의지가 맥박  
치고있다. 《마식령속도》야말로 원대  
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강성부흥의  
높은 명마루에 비약해나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진군속도  
이다.

《마식령속도》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기질을 낳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을 받들고 사회주의대진군선전투장들  
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힘있는 부  
대들이 마식령으로 달려왔으며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투에 진  
입하였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  
투쟁을 벌였다. 군인건설자들에게 있  
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호소문에서 제시하신 구호 《총공격  
전, 총결사전을 벌려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올해안으로 무조건 끝내  
자!》는 승리의 포대, 위훈의 거기로  
되었다. 그들이 틀어쥐 한마와 정대  
는 결사투쟁의 무기였고 그들의 공  
격방식은 립체전, 전격전, 섬멸전이  
었다. 천연바위들과 험한 산밭들을  
깨이내고 수십만㎡의 면적에 스키주  
들을 번듯하게 닦아놓았으며 호  
텔과 봉사 및 숙소건설, 직속기  
착물장과 사도건설을 비롯한 60  
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1년 남  
짓한 기간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  
을 일떠세운것은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는 혁명  
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  
군인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력사  
의 기적이다.

《마식령속도》는 령도자의 구상과  
결집성이 천만군민의 의지이고 실천  
인 군민대결의 위력이 높을 위대한

현연일체의 진군속도이다.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은 말그대로  
군민단결의 대결전장이었다. 군인건  
설자들이 전진의 돌파구를 앞장에  
서 열어나가고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총  
포탄을 만들어 전선에 보내주는 심  
정으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  
로 생산보장하였다. 군대와 인민이  
투쟁정신도 하나, 투쟁기풍도 하나  
가 되어 마대전, 불매당으로 결사  
투쟁을 벌였으며 마식령에 방대한 면적  
의 스키주들이 자재를 드러내게  
되었다.

군인가족들이 전투현장에서 경제  
선동의 복소리를 높이 올렸고 온 나  
라 전체 인민의 뜨거운 원호의 마음  
들이 마식령으로 끊임없이 달려왔  
다. 군민대결의 위력은 말로도 쉬  
여넘는다. 산세협한 마식령을 걸터  
터전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투에 진  
입하였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  
투쟁을 벌였다. 군인건설자들에게 있  
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호소문에서 제시하신 구호 《총공격  
전, 총결사전을 벌려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올해안으로 무조건 끝내  
자!》는 승리의 포대, 위훈의 거기로  
되었다. 그들이 틀어쥐 한마와 정대  
는 결사투쟁의 무기였고 그들의 공  
격방식은 립체전, 전격전, 섬멸전이  
었다. 천연바위들과 험한 산밭들을  
깨이내고 수십만㎡의 면적에 스키주  
들을 번듯하게 닦아놓았으며 호  
텔과 봉사 및 숙소건설, 직속기  
착물장과 사도건설을 비롯한 60  
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고 1년 남  
짓한 기간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  
을 일떠세운것은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는 혁명  
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  
군인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력사  
의 기적이다.

《마식령속도》는 령도자의 구상과  
결집성이 천만군민의 의지이고 실천  
인 군민대결의 위력이 높을 위대한

합잡음에 없고 최상의 수준이다.  
산밭들에 뻗어내린 스키주들은 말  
할것도 없고 호렷과 속소를 비롯한  
봉사군을 하나하나 다 지형과 용  
도에 맞게 특색있게 꾸러졌다. 《마식  
령속도》의 창조는 누구나 제힘으로  
세것을 개척하겠다는 강한 자존심과  
정도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  
로 생산보장하였다. 군대와 인민이  
투쟁정신도 하나, 투쟁기풍도 하나  
가 되어 마대전, 불매당으로 결사  
투쟁을 벌였으며 마식령에 방대한 면적  
의 스키주들이 자재를 드러내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조국력사에  
저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  
쳐넘는다. 1970년대와 같이 혁명의  
인근본원천이었고 남들같은 상상  
조차 할수 없는 세계적인 전변을 안  
아온 기적창조의 원동력이었다. 선군  
시대에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마식령스키장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바람  
한뫼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  
민의 현연일체가 낳은 고귀한 결집  
성이다.

《마식령속도》는 우리 당의 과학  
기술사상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  
천으로 보여준 새 세기 사회주의대  
진군속도이다.

건설주의명령을 우리의 힘, 우  
리의 지혜, 우리 식으로 일떠세우  
는것이 스키장건설자들의 한결같은  
열망이었다. 그들은 비록 마식령  
에 발을 붙이고있었지만 높은 세계  
를 굽어보며 조선식화상의 나라를  
펼쳐온 강한 민족적자존심의 체현  
들이었다. 《마식령속도》창조의 나날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경제적으로  
벌어졌으며 봉사자들의 슬기로운 두  
뇌에서 태어난 우리 식의 과학적이며  
창의고안성이 도입되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조국력사에  
저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  
쳐넘는다. 1970년대와 같이 혁명의  
인근본원천이었고 남들같은 상상  
조차 할수 없는 세계적인 전변을 안  
아온 기적창조의 원동력이었다. 선군  
시대에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마식령스키장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바람  
한뫼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  
민의 현연일체가 낳은 고귀한 결집  
성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조국력사에  
저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  
쳐넘는다. 1970년대와 같이 혁명의  
인근본원천이었고 남들같은 상상  
조차 할수 없는 세계적인 전변을 안  
아온 기적창조의 원동력이었다. 선군  
시대에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마식령스키장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바람  
한뫼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  
민의 현연일체가 낳은 고귀한 결집  
성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조국력사에  
저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건설에  
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  
쳐넘는다. 1970년대와 같이 혁명의  
인근본원천이었고 남들같은 상상  
조차 할수 없는 세계적인 전변을 안  
아온 기적창조의 원동력이었다. 선군  
시대에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마식령스키장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바람  
한뫼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  
민의 현연일체가 낳은 고귀한 결집  
성이다.

발휘하여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마식령속도》로 비약의 불바람을 세  
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농업과 건설, 과학기술부문은 올  
해의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할 중요전선  
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  
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년이 되  
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결  
정적전환을 일으켜 당이 제시한 앞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  
선인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과학연구부문에서  
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에서 전방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  
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  
제들을 풀고 최첨단을 돌파하여 지  
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선형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  
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  
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  
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과  
수산부문에서는 여러가지 질풍은 인  
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고구  
마에서 만산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교육, 문  
학예술, 체육부문에서는 혁  
명적스포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  
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군민건설  
자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철저히 구  
현해나가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 구원자  
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  
진군의 위훈자, 승리자이다. 혁명적  
군인정신만 있으면 어떤 높은 목  
표도 당시에 점령할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마식령의  
기적이 실증해주었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  
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  
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불타는 결의  
에 충만되어있다. 각급 당조직들에  
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데로 당사업을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당조직들과 정치일군  
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정치사업  
을 하나 하나도 공세적으로, 혁신성  
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펴  
필 끓이며 초소와 일터마다서 끊임  
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수  
있어야 한다. 1970년대 당의 기  
조속성기처럼 사상전, 선전전동의  
불바람을 일으켜 온 나라에 혁명의  
복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마식령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올해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  
한 변혁의 해로 빛내자.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마식령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올해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  
한 변혁의 해로 빛내자.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마식령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올해를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  
한 변혁의 해로 빛내자.

##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친 불멸의 전투적기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온 나라 당  
원들과 인민들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고있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진전, 투  
쟁과 번영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에  
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신념과  
의지가 활화산처럼 타버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  
을 선포하신 40년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당을 조직사상적  
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혁명  
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  
하여야 합니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  
은 방대하다. 하지만 당조직들  
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  
로 강화할 때 못해낼 일이 없으  
며 절명 못할 목표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  
을 선포하신 40년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당을 조직사상적  
으로 공고히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

로온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올해에 혁명과 건설에  
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도록  
하겠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  
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  
하여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당의 사상적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  
도록 하겠다. 당조직들이 당안에  
유일적당령도계를 철저히 세우  
고 당대회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들어주시고나간다면 합으로써 온

나라를 일심단결의 성세, 모두  
만들겠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원력은 천만군민  
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  
키기 위한 혁신적조직사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  
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  
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 기본  
공리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사  
당세포를 중시하고 적극 도와주  
는 기풍을 세워 모든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최후  
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  
도록 하겠다.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어머  
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 모든 당원들이 《모  
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  
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  
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  
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게 하  
겠다.

그러하여 모든 당원군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맨 앞장에서 높은 실적  
으로 만들어나가는 신년의 동  
지, 의리의 동지로 만들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어머  
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 모든 당원들이 《모  
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  
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  
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  
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게 하  
겠다.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어머  
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 모든 당원들이 《모  
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  
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  
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  
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게 하  
겠다.

새해의 첫이월 내 조국의 천  
리방선초소들마다에서 경애하  
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신년사  
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백두산혁명  
강군의 기적과 위훈을 더 높이  
이 떨쳐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  
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충실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  
화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새겨들고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  
에 넘쳐나있는것은 또 한번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이다.

시한해 우리 인민군대가 원수  
들의 가슴되는 핵전쟁도발책동  
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시며  
혁명의 주력군단계 조국수호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올수 있었던것은 경애하  
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선  
군혁명명도의 결과이다.

인제나 인민군대의 정치군사  
적강화에 깊은 관심을 들리시며  
끊임없는 전진시찰의 결에서 승  
고한 동지적사랑의 리리로 봉사  
들을 따사로운 한복에 안아주시  
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는 우리 인민군대  
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  
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었다.

당의 령도는 우리 인민군대의  
생명이이다.  
우리는 전군에 최고사령관동지  
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  
이는 강한 명군체제와 혁명적군  
풍을 튼튼히 세워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해나가겠다.

인민군대의 기본전투단위  
고 인민들의 생활터전인 중대들  
강화하는것을 중시코리리 틀어  
쥐고 모든 중대를 정치사상적으  
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  
비된 최정예전투대로로, 친철육  
의 정이 차넘치는 정든 교향집  
으로 만들겠다.

군인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금수산태양군과 당중앙위원회  
를 결사옹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철저히 준비시키겠다.

전군에 백두산현연일풍을 더  
욱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  
을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무사술  
은 체력, 강한 규율성을 지닌 일  
당백의 싸움꾼들로 튼튼히 키우  
겠다.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  
위와 함께 세로지구 축산기지건  
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의 행  
복의 창조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겠다.

조선인민군 장령 리 문 국

###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우리들의 가슴을 새로  
운 신심과 솟구치는 열정으로  
끓여받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올해 우리  
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와 방도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조국통일  
유훈 관철을 위한 올해의 력사  
적투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위업실  
현의 획기적전진을 능히 이룩할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는 민족의 영리한 태양  
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제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의 민족의 영리한 태양  
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제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민족의 영리한 태양  
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제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년이  
되는 해이다.

###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기적을

북장지구관관리합기업소 지  
배인 신원일은 지금 우리 령합  
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커  
다란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다  
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우리는 탄부들의 양양된 열의  
에 맞게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  
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참된  
지휘정신이 되었다.

올해의 투쟁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년을 빛나  
게 장식할 대추전장파와 잇닿아  
있는 승리자의 진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  
겠다.

조선로동당창건 70년을 빛나  
게 장식할 대추전장파와 잇닿아  
있는 승리자의 진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  
겠다.

올해의 투쟁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년을 빛나  
게 장식할 대추전장파와 잇닿아  
있는 승리자의 진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  
겠다.

올해의 투쟁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년을 빛나  
게 장식할 대추전장파와 잇닿아  
있는 승리자의 진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  
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드높이 펼쳐나선 수도의 근로자들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 일심단결의 위력 떨치며 조국이며 앞으로!

또 한번의 백두산천출위인을 높이 모시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 주제 103(2014)년!

주제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한 천만군민은 평범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탁판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환하신 영상을 경건히 우러른다.

위대한 태양의 걸출한 위인상을 심장깊이 간직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에 맥박치는 애국의 숨결로 울해 대고조선의 첫 자욱을 힘차게 내디디었다. 력사적인 신년사에 매혹된 온 나라의 마음과 마음이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단 끝없이 달리고있으며 원수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기어이 최후승리를 떨치리라는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자기 평도자의 사상과 뜻을 받드는 길에서 천만군민이 한몸으로 살고 한본색으로 일해나가는 이 격동적인 현실은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주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혼연일체의 위대한 중심으로 높이 모신 조국의 앞날과 우리 혁명의 전도가 얼마나 양양한가를 음변으로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새해의 첫 기슭에서 가야 할 혁명의 천만리길을 바라보는 우리 군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이 높뛰는것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기때문이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되는 해의 1월 어느날이었다. 새해 정초부터 떠나던 전진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때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그 위력으로 혁명을 백승의 길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열의를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그리고는 이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는 동지부자, 전우부자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우리의 귀중한 재부중의 재부라는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최강의 무기,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위대한 추진력인 일심단결! 정령 그것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의 가장 큰 재부이며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혼연일체의 위대한 중심으로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은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더욱 친근한 면모도 비장한 의미도 천만군민의 심장을 팡팡 두드려주고있다.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발이 닳도록 인민들속으로, 혁명적전우에...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러하시였듯이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단결은 곧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려는 무한한 정이고 그들의 행복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 참석하시어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 101(2012)년 4월

최상의 수준에서 꽃피우는 헌신적인 사랑이다.

뜻깊은 이해의 첫아침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바로 전날, 한해의 마지막날의 당보에 편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보도를 생각하며 눈물을 뜨겁게 적시었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마시령스키장을 찾으면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삭도를 먼저 타시고 정점까지 오르시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불멸의 화복을 우러르며 온 나라가 놀랐다. 한 나라의 평도자가 인민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료해하기 위해 아직 시공자, 건설자들도 제대로 타보지 못한 수천만 삭도를 타고 산세들도 뛰어 넘어가시지 못하는 평정점에 오르며 친히 시운전을 한 때가 그 언제 있었든가, 사진문헌에서 알릴까 내리다보이는 산발을 보며, 흰눈덮인 마식령골만에 서서있을 12월의 강추위를 생각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더는 이런 위험한 길에 계시지 말아주시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온 한해를, 아니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매 날과 달들을 우리 원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시었다.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으로부터 최대 열점지역의 섬초소, 크지 않은 산골군의 인민봉사기지로부터 동해의 이듬없던 수산사업소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젊은 열정이 새겨진 자욱들마다에 생겨난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그 얼마인가.

인민군장을 찾으면서 인민들이 않는 의자에 앉은 풍연을 관람하겠다고 하시며 스타그램없이 4월 28번파석에 앉으신 사실, 우리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게 된것이 그러도 기쁘시여 군인들에게 공급할 물고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신 사연,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 사나운 파도가 일어난지는 위험천만한 날파도를 헤쳐 섬초소들을 찾으신 이야기... 그 길에서 우리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었다. 단결깃양, 전투부차림으로 혁명의 마나면 깰수 없는 해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한평생 수수한 잠바웃, 인민복, 아전복차림으로 전진길,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소중히 안으시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찾아 선군궤도우로 인민행렬차를 취임없이 달리시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정치가들도 많지만 우리의 대원수님들과 같이, 우리 원수님처럼 늘 인민을 찾아가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과 단 한치의 간격도 없는 그런 위인들은 일찌기 없었다.

혁명의 본질도, 선군의 목적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데 두신 우리 원수님이시기에 그이께서 헤쳐오신 선군장정의 길에는 감동없이 받아안을수 없고 눈물없이 새길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얼마나 많이 새겨져있는지 모른다.

이태전 2월 어느날 절세의 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살림집을 받아안은 만포시인민들이 대해같은 그 언덕이 너무도 고마와 경애하는 원수님께 백두의 혈통을 대를 이어 총직하게 받들어 인민대중중심주의의 우리 식 사회주의만세소리를 더 높이 울려갈 결의를 담은 편지를 활발과 함께 삼가 올리였을 때였다.

인민의 불같은 충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을 담아, 정을 담아 이런 감동들은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

나는 도당과 시당일군들이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 한생애를 끄고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그들이 제기하는 백옥같은 활약을 장군님의 사랑으로 시안의 인민들, 어린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집행하시요. 만포시 인민들의 편지를 받아보시

정말 힘이 솟고 더 분발하여 혁명을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세어 집니다.

김정은  
2012. 2. 14

백두산 그 언덕 고맙기 그지없는데 오히려 자신께서 힘을 받았다고 하시며 열렬한 인민사랑의 의지를 더욱 굳히신 우리 원수님,

일심단결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꽃피워주며 미래까지 담보해주는 은인처럼 고마운분은 없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우리 원수님께서 이 나라의 매 개인, 매 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되시어 사회적인간이 누릴수 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더욱 풍만하게 해주시고 대대로 만복을 누리길 번영의 터전을 굳건히 다져주시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 평도자에게 바치는 충정의 일편단심을 그 무엇보다 바랄수 없는 제일생명으로 여기는것이이며 우리의 일심단결은 혼연일체라는 값없는 말과 더불어 더욱 굳건해졌다.

평도자는 인민을 위해 불굴의 헌신사를 수놓고 인민은 평도자의 사상과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대는 혈연의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사랑과 정이 뿜어지고 매혹과 흥도가 격랑치며 믿음과 그리움이 넘쳐나는 이 성스러운 단결에서 그 한계를 알수 없는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힘이 분출되고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의 미래를 확인하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주의가 빛받치고있다. 이런 위대한 단결의 힘을 당할자가 세상 그 어디에 있랴.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리상을 이 땅위에 기어이 꽃피우실 불변의 의지를 담아 이렇게 선언하시었다. 백두산에서 우리 수령님 들고오신 붉은기는 높이 휘날려야 하고 선군의 총대는 강성의 보검으로 서리발쳐야 하며 사회주의와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으로 영원히 빛을 뿌려야 한다!

그 철석의 의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사회주의강성 국가건설의 길을 맨 앞장에서 헤쳐나오신. 자신께서 먼저 닳도록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며 김정일애국주의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단결의 전통을 전조가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혁명적전우애의 력사도 빛내여가시며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의 돌격전으로 부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자,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우리 원수님에 대한 신심을 저버릴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공동된 사상감정이고 높은 정신력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위한 불변의 일편단심이다.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강적도 쳐물리치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 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깊이 새기며 승리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열정에 넘쳐 새해의 총진군에 한사팔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올해는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선군조선의 번영기, 여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며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 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승리의 신심들》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주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올해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투쟁과업은 참으로 거창하고 방대하다. 우리는 올해에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땅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평형하여야 하며 청년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로지구 축산식민지건설, 고산과 수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 비롯한 중요대상건

설과 살림건설,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 등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 지식경제건설의 지평기를 열어놓기 위한 과학기술발전이 힘을 넣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의 생산을 추켜세우고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키며 경공업과 수산업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와야 한다. 교육과 보건, 문화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분야에서 비약과 혁신의 큰결실을 내짚는것도 올해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업도 중단없이 내밀어야 한다.

이 모든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될 때 선군조선의 번영기가 펼쳐질수 있으며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올해가 더없이 영예롭고 장엄한 투쟁의 해로 되는것이다.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올해의 장엄한 총진군은 승산이 확고한 투쟁이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군사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토대와 주체적력량이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웅대한 리상과 목표는 자기 힘에 대한 믿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백두산절세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오는 력사적로정에서 우리의 정치군사적위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갔다. 전당에서 비약의 열풍이 불고있는 이 시기에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짝 차넘치고 평도자와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장파 마시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며 우리 당과 인민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었다.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시령수도》창조의 불길속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단계를 따라배워야 할 사고관점과 투쟁기풍, 일본색의 본보기들이 마련되고 당의 위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린것은 참으로 자랑할 만 한 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배로 강화되었다. 이것은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크나큰 힘으로 된다.

최근년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선군이 힘있게 추진되어 우리의 국가경제력도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경제전반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첨단과학기술 분야들이 연이어 개척되고 우리 조국이 우주강국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특히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에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힘을 합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꽃피워주시려

### 다시 시작된 삼복철강행군

지난해 7월 16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지고있는 아동병원과 구강병원건설장을 찾아주시었다.

이날 아침부터 지못내 내리는 비로 하여 건설장은 험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에

### 고결한 충정을 안으시고

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하고 세계적인 의료봉사기지를 하루빨리 마련해주시려는 강렬한 한마음을 감히 험한 건설장에 인민사랑의 위대한 자욱을 꽃피우시어 새겨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삼복이 시작되는 7월 한달에만도 과학자살림집건설장, 인민군대에 건설한 버섯장등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신 단위는 그 얼마인지 모른다.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난해의 삼복철강도강행군은 이렇게 또다시 시작되었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리심에 떠받들려 문수물놀이장에

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현역석고림상이

정중히 모셔지게 되었다.

이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바치신 실험과 로고는 생각지 않으시고 은하과학자거리로 건설세우는데 공헌을 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회의 이름으로 감사사를 주시었다.

그들이 받아안은 값없는 평가, 정령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평도리에 날아들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또 하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사랑과 정이 뿜어지고 매혹과 흥도가 격랑치며 믿음과 그리움이 넘쳐나는 이 성스러운 단결에서 그 한계를 알수 없는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힘이 분출되고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의 미래를 확인하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주의가 빛받치고있다.

이런 위대한 단결의 힘을 당할자가 세상 그 어디에 있랴.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리상을 이 땅위에 기어이 꽃피우실 불변의 의지를 담아 이렇게 선언하시었다. 백두산에서 우리 수령님 들고오신 붉은기는 높이 휘날려야 하고 선군의 총대는 강성의 보검으로 서리발쳐야 하며 사회주의와 일심단결은 조선의 모습으로 영원히 빛을 뿌려야 한다!

그 철석의 의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사회주의강성 국가건설의 길을 맨 앞장에서 헤쳐나오신. 자신께서 먼저 닳도록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며 김정일애국주의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단결의 전통을 전조가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혁명적전우애의 력사도 빛내여가시며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의 돌격전으로 부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자,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우리 원수님에 대한 신심을 저버릴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공동된 사상감정이고 높은 정신력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위한 불변의 일편단심이다.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강적도 쳐물리치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 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 값 높은 평가

지난해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화국강건 65돐을 맞으며 훌륭히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었다.

이곳에 꾸러진 3호동과 15호동의 여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에 정갈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 예정을 정중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기에 어버이장군님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10월 중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던 때의 일이다.

이날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 예정을 정중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기에 어버이장군님의

은 세상이 밝아지도록 환히 웃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리 철

### 갈수록 더해만지는 사랑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끓어 오르고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창조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인민의 모든 꿈이 현실로 꽃피는 내 조국의 자랑찬 오늘에 대하여 과연 생각할수 있었는가.

이윽고 승업한 감정에 휩싸이어서 일군들을 정중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에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류

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하여 대중봉사시설들이 일떠들었다고, 앞으로 인민을 위한 이런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힘차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현실로 꽃피는 내 조국의 자랑찬 오늘에 대하여 과연 생각할수 있었는가.

이윽고 승업한 감정에 휩싸이어서 일군들을 정중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에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류

본사기자 김 준 혁



#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의 투쟁을 백전백승으로 고무추동한다

주제 103(2014)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광넘긴  
행로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게  
될 내 조국의 새해이다.

우리의 새해는 신년사를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들으며, 천만전사들의 위훈을  
조국청사에 값높이 빛내주시고 온 나  
라 가정들까지 따뜻한 축복의 인사  
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  
같은 영상을 우리로써 천만군민이  
격정에 눈시를 적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  
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  
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  
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파 잇닿아  
있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  
진군을 다그치므로써 혁명과 건설  
에서 일대 변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승리자의 진군, 영웅적진군!  
얼마나 가슴설레이게 하는 전투적  
인 소신인가.

한해는 1월부터 시작된다.

1월, 이달에는 누구나 한해의 계획  
을 세우며 밝은 새해 기쁨과 행복  
속에 이머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넓고 넓은 이 세상에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앞날에 대한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오른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  
인가.

해돋는 아침같이 활기에 넘치고  
설레는 바다와 같이 풍만한 우리  
의 희망과 포부는 과연 어디에 뿌리  
를 두고있는 것인가.

《신년사를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뵈오니 힘이 납니다.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위하시는  
우리 원수님만 계시면 이 세상에 두  
려운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는 우  
리들입니다.》

이것은 저 멀리 눈덮인 세로동관  
건설전투장에서 울려오는 군인건설  
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신심에 넘친  
목소리이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역대  
의 제부보다 귀중한것은 앞날에 대  
한 확신이며 운명에 대한 믿음이다.  
력사의 모든 기적과 변혁은 언제나  
자기의 앞날을 굳게 믿는 신념의  
강자들이 이룩한것이었다.

우리는 승리를 굳게 믿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  
리 앞날 밝다!

새해의 진군길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이 신념  
이 뜨겁게 고동된다.

이 믿음으로 하여 새해의 진군길  
을 다그치는 우리의 발걸음은 그리  
도 신중하고 신심에 넘쳐있고 달  
려갈 한해의 날과 달들을 그려보는  
우리의 눈빛은 것처럼 밝고 희망에  
넘치는 것이다.

진군의 기상 넘치는 이 땅의 1월  
은 풀없이 밝고 창창할 내 조국의 패  
일을 환히 밝게 그려준다.

걸어온 길 뒤돌아보고 또다시  
걸어갈 앞길을 신심드높이 내다보는  
우리의 귀전에 뜨겁게 울려오는

## 정론 승리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

음성이 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의 발  
구름소리가 높이 울리는 력사의 분수  
령에서 우리 원수님 천만군민의 앞길  
에 힘차게 울려오신 진격의 포성.  
새해신년사는 최후의 승리를 향해  
가는 그 진격의 대오에 더욱 힘있게  
울려오신 애국의 호소이다.  
이 땅의 모든 초소와 일터마다에  
불어치는 기적과 비약의 불바람은  
위대한 선군정장의 호소따라 최후승  
리의 언덕으로 더 빨리 오르려는 천  
만군민의 역세인 심장의 박동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참으로 많은 일  
을 해놓았다.

10년을 1년으로 비약하고 남들  
같은 몇년을 두고도 이룰수 없는  
방대한 일감들을 단 몇달사이에 해  
제하며 참으로 질풍같이 달려왔다.  
하지만 만여기서 멈출수 없는 우리  
의 발걸음이다.

승리를 향하여 진군 또 진군!  
바로 여기에 참다운 조국의 변혁  
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민족  
의 패일이 있기때문이다.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정보의 갱신속도가 분이 아니라 초  
초 단위로 바뀌어지고 방금 태어난  
새끼는 눈감박한 사이에 평범한것으  
로 되어버리는 오늘날의 세계이다.

담보처럼 무서운것은 없다는 말도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진보와 변혁이  
하나의 맥락으로 굳게 이어진 시대  
는 일찍이 없었다.

천만이 어깨걸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은 무엇  
으로 하여 귀중인가.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의 행군길,  
민중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투  
쟁의 선봉선, 제대미우에서도 주저  
않고 시련의 눈보라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성스러운 우리의 투쟁  
행로에는 자기의 피땀을 흘리며 있  
고 표적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온 세상에 빛  
내리라,  
바로 그것이다.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  
드세라는 애국가의 장중한 구절에도  
이듯이 절세의 애국자를 진두에  
모시고 걸어온 우리의 행군길은 어  
느것이냐 다 사랑하는 조국을 만방  
에 빛내이기 위한 애국의 총진군의  
가수이다.

그들이 모시어 이 땅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으로 새차게 불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약동하는 젊음  
으로 비약하는 기적의 세월로 세계  
의 각광을 받고있다.

최근 안 한 나라의 총관보도  
물은 침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모도를 전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야전필자의  
사색동승이 다시 울리고있다.

우리 조국은 또다시 혁명의 붉은  
기를 진두에 펼칠 때 최후승리의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다.

이것을 향하여 진군 또 진군!  
고난과 시련의 눈보라속에서  
더 힘차게 이어지며 조국을 전진시  
키고 미래를 앞당기기 불명이같은  
부름을 우리는 정녕 잊을수 없다.

위대한 기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부신 기상이다.  
그이를 높이 모시어 조국강산은  
희망과 신심에 넘치고 그이를 따라  
나아가는 진군대오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기다리고있다.

그 이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진군대오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기다리고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위대한 기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눈부신 기상이다.  
그이를 높이 모시어 조국강산은  
희망과 신심에 넘치고 그이를 따라  
나아가는 진군대오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기다리고있다.

그 이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마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이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맡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투쟁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이 땅을 부르면 신심넘치고



#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킬 열정 드높다

## 과학기술용마의 날개를 펼치고 앞으로 내달린다

은정과학자들에 대해 총선군의 이치가 밝아왔다.

과학기술용마를 타고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의 진군길에 오를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 드높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결사판철하여 과학기술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과학기술발전으로 인민의 천만가지 행복과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불길갈 세계에 일으켜갈 불같은 혁명적열정과 창조적기상으로 드넓은 과학자기가 불도가나마 당 높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시 마련해준 과학기술용마의 날개를 활짝 펼쳐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공대를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력량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당과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며 그와 더불어 이곳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지닌 책임과 임무는 매우 무겁고도 영예로우며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

국가과학원에서는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연구사업을 하든 이러한 숭고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올해의 총선군을 다그치도록 하는데 주되는 모를 박고있다.

이제 위대한 국가과학원적인 조직정시사업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즉시 원장,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비롯한 국가과학원의 일군들은 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원수님의 령도업적이 있었든이 잔디연구분원, 중앙발전연구소와 여러 연구단위들에 내려가 새해전투에 진입한 과학자들과 일군들을 고무해주었다.

지금 국가과학원의 매 부서들과 아래 연구단위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과제를 위하여 전투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신화하기 위한 작전이 분과 초를 다투며 긴장하게 벌어지고있다. 전투의 승리는 작전도우에서 먼저 마련되기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기 위한 수습적인 대상과제들이 설정되였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데 과학기술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연구소와 분원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투쟁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

여러 단위들에서는 추위전달성비품공을 육성해내고 이미 농업생산실현에서 그 우월성과 경제효과성이 뚜렷이 검증된 티오코비로, 콩뿌리혹균비료의 도입입력을 더 늘이며 은정복합공에 의한 집짐승살포력이 생산기술과 식물성농약, 종자처리제, 천연생물활성제 등을 확대도입하여 알곡증가 수확고를 높이고 고기와 알생산량을 늘이는데 이바지할 목표를 내세웠다.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위성정보색에 의한 비수확도량계측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전진이 이룩된 전망도 좋다.

여러 연구소들의 협동연구를 잘 짜고들어 비석재배기술을 대용할수 있는 원료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비롯하여 비석생산을 늘이는 선진기술들을 확대도입하기 위하여 제기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철도운수종합관리정보체계의 개발, 생산성이 높은 다시마우

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도 짜고되고있다.

소금물농축용이온교환막의 제조공정을 확립하고 산소열분용융환원체철공정의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며 주체철용광로행정에서 간단한 리용품을 늘이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현대화수준을 높이는데 제기되는 문제, 초산에틸합성공정에서 내내내 여러가지 목표들이 성과적으로 달성되던 우리 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화력발전소 보이라에 산소-미분원탄화합기술을 도입하고 중형 및 대형발전소들에서 자동화제어시스템의 도입으로 발전기러자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청정강제냉각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현실에서 검증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진기술들을 확대도입하기 위하여 제기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철도운수종합관리정보체계의 개발, 생산성이 높은 다시마우

단에 추와 락구, 짧은주르속도방산 등 여러 종류의 국제국내경기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적극 살려 올해에 모든 종목들의 기술발전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새해 첫 훈련에서부터 선수, 감독들의 심신드높이 힘있는 투쟁을 벌여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의 드넓은 훈련열의에 맞게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고있다.

체육부에서는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성, 진취적 사업태도를 가지고 선수들을 위하여 뛰고 또 뛰도록 적극 떠밀어 주고있다.

중목별 감독들은 과학적인 훈련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선수들이 훈련과제를 무리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특히 축구종목의 감독들이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수훈련지도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체육단일군들은 선수들의 드넓은 훈련열의에 맞게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불타는 일념과 맹훈련을 벌여나가는 화북체육단의 선수, 감독들의 애국충정의 범람을 만드신 훌륭한 결실을 맺을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흥분과 감격속에 받아안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새해의 첫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설의 열정을 불태우고있다.

총장 배동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건설은 강국건설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건설이라고 밝혀주시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참관해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과학적재능과 창조적열정을 총괄성실기다려온 높이 세운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명할수 있다는것이 국가과학원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명희

대학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조지침에 제응하는 건축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연구사업목표들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사업목표들을 비롯하여 세우려고있다.

교육사업의 정보화, 현대화, 첨단화를 실현하며 실험실습실들을 많이 내오고 모의실험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망계획도 대단한것이지만 다차원설계연구력량을 전담성있게 꾸려 우리 식의 첨단설계방법을 교육사업과 설계실현에 구현하기 위한 목표도 높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과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일념으로 불타는 대학교육자들의 열의와 기세는 대단하다.

건축실내설계과목을 비롯한 모든 전공과목들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전자장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교원들의 가치있는 교육방법을 연구개발을 1인 이상 내놓으며 새 교수방법들을 교육실현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여러 대상들의 건축형성설계와 경제개발구설계, 우리 식의 녹색건축, 생태건축, 지능건축과 수자도시설을 위한 연구사업, 합리적인 건설공법들과 세계적수준의 읍림모의프로그램 개발, 우리 식의 불장식설계

평양건축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

대학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조지침에 제응하는 건축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연구사업목표들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사업목표들을 비롯하여 세우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과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일념으로 불타는 대학교육자들의 열의와 기세는 대단하다.

건축실내설계과목을 비롯한 모든 전공과목들의 현대화수준을 높이고 전자장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교원들의 가치있는 교육방법을 연구개발을 1인 이상 내놓으며 새 교수방법들을 교육실현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여러 대상들의 건축형성설계와 경제개발구설계, 우리 식의 녹색건축, 생태건축, 지능건축과 수자도시설을 위한 연구사업, 합리적인 건설공법들과 세계적수준의 읍림모의프로그램 개발, 우리 식의 불장식설계

본사기자 공로혁

## 전투장들에 내려치는 화선군인의 정신

각지의 료일군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뎀하는 가슴마다에 찬찬 각지의 료일군들이 화선군인의 정신으로 대고전투장들에 달려나가 현장의 료보사활동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다. 자애로운 하얀 평야를 비롯한 전진의 치료예방기관에서 유능한 료일군들을 망라하고 현대적인 기능전반성비들을 갖춘 전진치료대를 파견하여 새해전군길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킬수 있으며 전반적부강사태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인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지난해말부터 보건의료해당 부문 일군들과 각지의 료일군들은 인민에게 중요단위들에 대한 현장의 료보사사업을 힘있게 전개할 열의를 가슴 불태웠다.

평양시외의 치료예방기관 료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치료예방사업을 전개할 일념에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고있다.

대고전투장들에 대한 현장의 료보사자를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던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의 료일군들

이 열정에 섰다. 지난해 12월말 평양화력발전 전진치료기공소에 달려나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료일군들은 치료초소들을 전진적으로 전개하고 다음날 새해 첫 전투에 펼쳐나선 료동체과 승진을 같이하였다.

해마다 이곳 료동체과 승진을 같이하였다. 해마다 이곳 료동체과 승진을 같이하였다. 해마다 이곳 료동체과 승진을 같이하였다.

방문의료일군들이 해놓는 자그마한 성과를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치료예방과 의사 변경조동무를 비롯한 료일군들은 료보사활동을 전진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동평양화력발전소에 달려나간 김만유병원의 료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펼쳐나선 료동체과 승진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방직철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료일군들은 배드산3대교관의 령도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곳곳마다에 치료초소들을 전개하고 료보사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들은 방직공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보약차를 만들어 공급하기 위한 사업도 면밀히 짜고두고있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의 료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펼쳐나선 료동체과 승진을 같이하였다.

이외에도 양양시 제 1, 2, 3 인민병원을 비롯한 각지의 치료예방기관들에 대한 료일군들의 령도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다.

체육부에서는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성, 진취적 사업태도를 가지고 선수들을 위하여 뛰고 또 뛰도록 적극 떠밀어 주고있다.

중목별 감독들은 과학적인 훈련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선수들이 훈련과제를 무리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특히 축구종목의 감독들이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수훈련지도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체육단일군들은 선수들의 드넓은 훈련열의에 맞게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불타는 일념과 맹훈련을 벌여나가는 화북체육단의 선수, 감독들의 애국충정의 범람을 만드신 훌륭한 결실을 맺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옥별

## 해북체육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화북체육단의 선수, 감독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배부의 훈련열풍을 새해에 일으키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을 벌여나가고있다.

새해 첫 훈련에서부터 선수, 감독들의 심신드높이 힘있는 투쟁을 벌여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의 드넓은 훈련열의에 맞게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고있다.

체육부에서는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성, 진취적 사업태도를 가지고 선수들을 위하여 뛰고 또 뛰도록 적극 떠밀어 주고있다.

중목별 감독들은 과학적인 훈련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선수들이 훈련과제를 무리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특히 축구종목의 감독들이 선수들의 육체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수훈련지도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체육단일군들은 선수들의 드넓은 훈련열의에 맞게 후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불타는 일념과 맹훈련을 벌여나가는 화북체육단의 선수, 감독들의 애국충정의 범람을 만드신 훌륭한 결실을 맺을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전력생산자들을 힘있게 고무

미술포수들의 창작가, 교원,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직관선동은 직관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하는 힘있는 선동형식의 하나입니다.》**

미술부문의 창작가, 교원,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해 첫날부터 전력증산의 동물을 새겨 올리고있는 평양화력발전전력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을 찾아 힘있는 직관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시미술창작사, 평양철도극단창작사 등 여러 미술창작기관의 창작가들과 평양미술대학의 교원들은 타린직장과 열 생산, 2직장의 현장들에서 전투속보들도 쓰고 로력혁신자 초상소묘들도 수없이 창작하였다.

그리고 창작 완성한 직관물들을 전력합기업소의 여러 가지 판들과 전투속보판들에 게시함으로써 전력생산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성호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만수대 언덕에 높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3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조선혁명의 세계지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이렇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혁명적인 도서를 물론 지성어린 보약들과 생활필수품들도 안겨주며 헌과 고무를 주는 일군들의 모습에서 군인의 열의와 전진로병, 공로자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리듯이 걸갈하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쫓아다니며 만들어갈 중정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 친부모, 친형제가 되어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도착

이것이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혁명적인 도서를 물론 지성어린 보약들과 생활필수품들도 안겨주며 헌과 고무를 주는 일군들의 모습에서 군인의 열의와 전진로병, 공로자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리듯이 걸갈하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쫓아다니며 만들어갈 중정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도착

이것이 해설해주면서 그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혁명적인 도서를 물론 지성어린 보약들과 생활필수품들도 안겨주며 헌과 고무를 주는 일군들의 모습에서 군인의 열의와 전진로병, 공로자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리듯이 걸갈하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쫓아다니며 만들어갈 중정의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본사기자

## 명곡을 통한 교양사업 활발

안악군 마령리에서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 《당에서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북 당조직에서는 농장의 문화회관과 농업과학기술식산건설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노래가사들을 게시해놓고 모든 일군들과 농업인원들이 노래의 구절구절을 같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두고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령도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우리 당에 자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앞머리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혁명파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고있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인원들은 시대의 명곡을 심장으로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명도를 앞장서 받들어나가기 위한 당면한 중대업무를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나가고있다.

본사기자

## 대중의 마음속으로, 들끓는 전투장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관, 인민의 총부로서는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회망한 새해 주제 103(2014)년을 각지의 당일군들은 드넓은 책임감과 불같은 헌신으로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으로 심장을

뛰어주며, 자기 단위 종업원들의 생활의 구수구수를 세심히 관심하며 새해 명절날에 헌신의 발자국을 새겨간 당일군들의 모습은 참으로 미덥다.

새해 명절날에 이 땅의 일터와 마을들에 새겨진 당일군들의 발자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일군들이 년초부터 열매나 분발하여나섰는가를 열, 백마디의 말보다 더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성호

## 전화소리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도 하면서

새해에도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는 초급당비서의 말은 너인

본사기자 리성호

## 사나이의 약속

렐레비준수상기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방금 접한 때였다. 2.8직동청년단광 9명 일군들이 신년사를 받들고 소대장 정과 흥분을 누락하지 못하고있었다.

본사기자 리성호

## 의 위대성 선전을 격성없이 진행

《지난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소대장 정과 흥분을 누락하지 못하고있었다.

본사기자 리성호

## 더 굳건히 세워준 마음의 대들보

(누구일?)

아침에 대문밖에서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인적이 날 때 북청군과수장정영위원회와 과학수능장 근로자 조영호동무와 가족들은 이 생각을 더듬었다.

본사기자 리성호

## 책임비서 윤경춘, 비서 방기영동무들을 비롯한 개천지주관

평원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 책임비서 리창동무를 비롯한 개천지주관평원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이 새해 명절에 발자국을 찍어간 곳에서도 놀라운

본사기자 리성호

## 중서에 자신을 거울처럼 비추어

본사기자 리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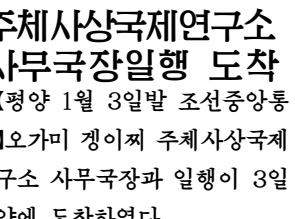
본사기자 리성호

본사기자 리성호

본사기자 리성호

본사기자 리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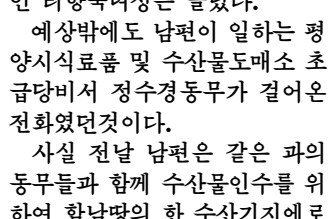
본사기자 리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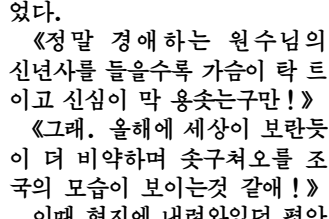
이오기영 경이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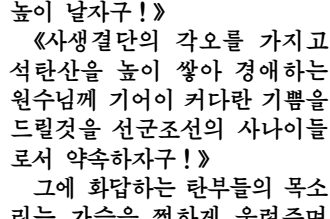
이오기영 경이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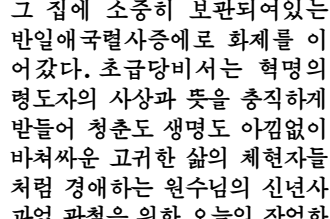
이오기영 경이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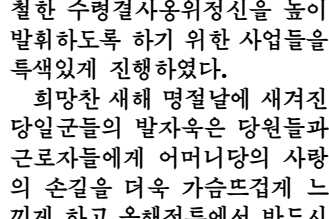
이오기영 경이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오기영 경이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오기영 경이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오기영 경이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이 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선군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신 위대한 업적

오늘 세계 진보적인 힘은 선군정치로 지구상에 광범위한 침략과 강권, 전횡을 짓부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가장 중요한 시련의 시기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최정예전투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전대미로 이끄셨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역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장구한 인류력사에는 명장들의 군사적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처럼 장정 수십년동안 정와 진리를 가장 철저히 수호하고 구현하시였으며 먼 후대에 가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정치철학을 내놓으시고 한 나라, 한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그처럼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강철의 명장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본적이 없다. 세기를 이어 커다란 생활권을 파시하고있는 불패의 선군정치는 오직 강철의 명장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결부될 수 있는 백승의 정치방식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불멸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어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군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는 투쟁을 힘있게 영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시고 나라의 존엄과 위력을 더 높이 떨치시였다.

## 월남 인터넷 우리 나라를 소개

월남의 인터넷홈페이지 207이 지난해 12월 25일 날로 번영하는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에서 평양시와 주요 도시에서 찍어온 사진과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나라에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건설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글은 조선에서는 사람들의 정신력을 최대 발달시키고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조선인민은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사상의식으로 부당치는 난관을 이겨내고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면 조선인민의 민족적 자존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 수 있다.

## 중국에서 모택 동동지탄생 120돐 기념좌담회

모택 동동지탄생 120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주최로 지난해 12월 26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기념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회장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습근평 총서기가 좌담회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혁명과 건설의 장구한 실천과정에 모택 동동지를 주요 교조로 하는 중국공산당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중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를 창제하였다고 하면서 최근 우리 나라에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건설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무분별한 망동

국제사회가 일본집권자의 야스구니 진자참배를 강력히 단죄

중국공무원인 양걸지가 지난해 12월 28일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집권자의 야스구니진자참배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일본수상 아베의 야스구니진자참배행위는 중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준엄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성명은 일본수상의 참배가 오세근의 불만을 다시 자아내고 지역에서 신뢰를 구축하는데 방해로 판독되었다. 그것은 또한 지역적색채를 더욱 강장시키고 지역나라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 \* \* 미군신분들이 최근 일본집권자의 야스구니진자참배행위를 비난하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야스구니 진자는 일본의 위우정통은 군국주의를 상징한다고 강조하고 아베가 이웃나라와 사이 좋게 지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긴장된 정세를 리용하여 헌법개정 등 우경적인 정치신조를 정당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한것이 아닌가 고 지적하였다.

## 총기류범죄사건 연이어 발생

미국에서 류형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주민들속에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었다. 이보다 앞서 25일 뉴저지주의 뉴아르에서 총기류범죄로 3명의 사상자가 났다. 계속되는 총기류범죄는 미국 사회의 부패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데 대해 심판한다고 말했다. 서방의 언론계에서 최근 일본집권자의 야스구니진자참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BBC방송은 아베가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한것은 주변 나라들과의 마찰을 격화시킬 위험을 개성하러는데 정치적목적 을 두고있으며 따라서 이웃나라들을 자극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평하였다. 이 나라 로이터통신은 아베가 야스구니진자참배를 통하여 과거의 전쟁에서 잃어버린것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도쿄도민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아베의 진자참배는 계획적인 도발로서 그가 일본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프랑스신문 《몽드》는 일본집권자가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채택한데 이어 진자참배가 나섰다는 것은 헌법개정과 군대 보유를 노렸기라고도 비평하였다.

## 심각한 경제 위기

미국에서 류형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주민들속에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었다. 이보다 앞서 25일 뉴저지주의 뉴아르에서 총기류범죄로 3명의 사상자가 났다. 계속되는 총기류범죄는 미국 사회의 부패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도이칠란드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경상수지적자가 490억US\$에 달하였다. 최근 이 나라 중앙은행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프랑스에서 지난해 3.4분기 수출이 그 전분기기에 비해 1.3% 감소되었다.

이 중상하였다. 부후호전세력은 이에 고치지 않고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각종 군사연습을 벌였다. 이 땅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국도의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미국의 침략야망과 반공화국광풍을 단호히 눌러버리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최고이익을 수호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 선군의 길밖에 없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이요 변함없는 의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철저히 군대를 기본력량으로 앞장에 내세우고 선군을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철두철미 선군정치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한가지 길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략적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절대불변의 선군지도를 더욱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랑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는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급속히 높여 최상의 상태를 이루고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강경압살정책을 실시하여 조선반도를 그 어느때보다 더 험악한 정세를 몰아왔다. 우리의 자리에 들어앉은 첫날부터 우리 공화국을 《제1 주적》으로 선포한 이진 미국대통령 부부는 《년두보고서》에서 우리 나라를 《미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고있는 나라》라고 더무니없이

## 경제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지난해 12월 26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올해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6.5%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이전 신자유주의시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경제부분에 대한 국가적지도도 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것은 매우 중요 한것이다. 사형화는 우리를 번번히 죽여주는 나쁜 습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6.5%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이전 신자유주의시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 유엔기구 이스라엘의 파괴행동 규탄

유엔팔레스타인관민기구제사단기구 대변인이 지난해 12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살인적파괴행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올해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6.5%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이전 신자유주의시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 서방의 제재 책동에 경고

이란국의 국가안전 및 대외정책위원회 보고담당관이 지난해 12월 26일 한 통보자의 회견에서 서방의 제재책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서방이 이란에 대한 제재책동을 강화한다면 이란정부는 나라의 핵계획에 따라 우라늄농축순도를 6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심의되고있다고 그는 말했다.

## 여러 나라들 사이의 협조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지난해 12월 24일 두 나라 해군사령관의 공동 훈련 및 교류를 통해 군사적협조를 강화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 최근 어느 나라 소나노 관용접기

이것은 전기전도속도를 대폭 떨어뜨린다. 과학자들은 전류가 탄소나노관 배열체를 통과할 때 나노관들의 틈에서 열이 난다라는 발견하고 이 열로 자부적인 화학반응을 일으켜 금속을 틈사이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탄소나노관들을 용접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기계의 힘을 빌려 금속을 틈새결합에 침투시키는 《화학기

##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파업은 필연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파업은 필연이다. 이것은 전기전도속도를 대폭 떨어뜨린다. 과학자들은 전류가 탄소나노관 배열체를 통과할 때 나노관들의 틈에서 열이 난다라는 발견하고 이 열로 자부적인 화학반응을 일으켜 금속을 틈사이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탄소나노관들을 용접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기계의 힘을 빌려 금속을 틈새결합에 침투시키는 《화학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돐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돐을 즈음하여 만민이 축하하는 날이 되었다. 우리 장군님의 대용단에 의하여 조선은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통구멍을 내고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게 되었다. 미국의 무기만 들른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런 미국방성의 차분보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작용하고있는것은 미국의 역력적이 아니라 조선의 역력적이요 조선은 로씨야나 중국의 지원이 없이도 미국의 핵공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제패를 추구하는 미제와 당당히 맞서 편전전승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한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이러한 경이적인 사변은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펼쳐질수 있었다. 적들의 반공화국침략기도가 절정에 이르고 그로 하여 정세가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발전할것에 이르렀던 시기에 선군의 기적높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신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

나이지리아 대통령 글 제재. 주제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근본원리로 하고 있다. 주제사상에 부러워 모든 군사상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도둑과 위엄을 위하여 복무하라는 대중의 자주성을 수호할것을 근본적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고있다. 헌법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헌법은 또한 인민들의 물질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높은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고있다.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해 12월 23일과 24일 중앙농촌사업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는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농업이 농업을 도와주고 도시가 농촌을 도와주며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일데 관한 방침을 견지하고 시종 3농사업을 확고히 틀어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식량안보를 담보하고 농촌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 완성하며 농산물의 질과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농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데 대해 강조했다. 2세대 원심분리기 설치. 이러한 한 우리 나농농축시설에 2세대 원심분리기 1000

## 개발

우선 용접하려는 탄소나노관 배열체를 사전에 금속분자기를 채워넣은 공중속에 넣는다. 다음 전류를 통과시키면 전기저항에 의해 탄소나노관들이 열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에 의해 공중안의 금속분자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이음부들을 정확히 용접한다. 이 나노용접은 몇초만에 진행된다.

##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 파키스탄에서 반미시위는 10명중 8명의 주민들이 경제위기가 가져지 않았고있는 것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고 한다. 에스빠나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인 살인집단매양이 지난 시기보다 훨씬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경제침체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캐나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극심한 경제생활난에 시달리던 나머지 국민들한테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 사회문제거리로 되고있다. 현실이 이러하니 어찌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정부의 부당한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오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파업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제도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본사기자 신경섭**

#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위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돐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돐을 즈음하여 만민이 축하하는 날이 되었다. 우리 장군님의 대용단에 의하여 조선은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통구멍을 내고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게 되었다. 미국의 무기만 들른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런 미국방성의 차분보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작용하고있는것은 미국의 역력적이 아니라 조선의 역력적이요 조선은 로씨야나 중국의 지원이 없이도 미국의 핵공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제패를 추구하는 미제와 당당히 맞서 편전전승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한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다. 이러한 경이적인 사변은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펼쳐질수 있었다. 적들의 반공화국침략기도가 절정에 이르고 그로 하여 정세가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발전할것에 이르렀던 시기에 선군의 기적높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신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 나이지리아 대통령 글 제재

주제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근본원리로 하고 있다. 주제사상에 부러워 모든 군사상은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도둑과 위엄을 위하여 복무하라는 대중의 자주성을 수호할것을 근본적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고있다. 헌법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헌법은 또한 인민들의 물질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높은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고있다.

## 2014년 국가 예산 채택

알제리에서 최근 2014년도 국가예산이 채택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 나라 대통령 아부머이즈 부베클리가 예산과 관련한 법에 서명하였다.

## 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헌정

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헌정 치연구소소 위원장 영. 자한기르 칸이 지난해 12월 2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돐과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2돐을 즈음하여 만민이 축하하는 날이 되었다. 우리 장군님의 대용단에 의하여 조선은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통구멍을 내고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게 되었다. 미국의 무기만 들른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런 미국방성의 차분보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작용하고있는것은 미국의 역력적이 아니라 조선의 역력적이요 조선은 로씨야나 중국의 지원이 없이도 미국의 핵공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인권의 사회적근거인 인권이 존중되고 세상이 없어진 조건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족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달려있고있다. 현실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근로인민대중에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민집회의 법으로 사회 형편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하고있다.

## 국가 예산 채택

알제리에서 최근 2014년도 국가예산이 채택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 나라 대통령 아부머이즈 부베클리가 예산과 관련한 법에 서명하였다.

## 국가 예산 채택

알제리에서 최근 2014년도 국가예산이 채택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 나라 대통령 아부머이즈 부베클리가 예산과 관련한 법에 서명하였다.

## 국가 예산 채택

알제리에서 최근 2014년도 국가예산이 채택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 나라 대통령 아부머이즈 부베클리가 예산과 관련한 법에 서명하였다.

## 국가 예산 채택

알제리에서 최근 2014년도 국가예산이 채택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 나라 대통령 아부머이즈 부베클리가 예산과 관련한 법에 서명하였다.

## 국가 예산 채택

알제리에서 최근 2014년도 국가예산이 채택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 나라 대통령 아부머이즈 부베클리가 예산과 관련한 법에 서명하였다.